『醫學讀書記·卷上』에 對한 飜譯硏究(Ⅰ)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1]
任二彬[1] · 方正均[1,*]

A Translation Study on the First Volume of 『Uihakdokseogi(醫學讀書記)』(Ⅰ)

Im E-bin · Bang Jung-kyun[1,*]
[1]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Uihakdokseogi(醫學讀書記)』 is a casual work which mentions Ujaekyeong(尤在涇)'s thoughts on various problems found through extensive studying or in practice. The book does not focus on a single topic, thus the spectrum of the work is broad and is filled with problems which would interest most medical professionals.

The major contents of the first volume of 『Uihakdokseogi(醫學讀書記)』 include differences of view on health preservation, the Five Circuit Phases[五運] and Six Atmospheric Influences[六氣], diseases, and the『Naegyeong(內經)』, mentions on errors in transcription, and the gap between certain contents in 『Yeongchu(靈樞)』 and 『Somun(素問)』.

U[尤在涇] asserts that Eum and Yang(陰陽) in a human should be in harmony as is the Gi(氣) of the sky and earth[天地] is, and that one should live according to the Gi(氣) of the four seasons to live a healthy life.

He does not vary largely from the context of other writers on the matter of the Five Circuit Phases [五運] and Six Atmospheric Influences[六氣], and focuses on the concepts of predominant Gi[主氣], guest Gi[客氣], corresponding years[天符], correlating years[歲會], and Taeeul corresponding years[太乙天符].

He mentions causes, symptoms, and treatments of various diseases such as cough due to asthenia of the viscera, stagnation of Yang(陽), stagnation of Eum(陰), abscess of the stomach, hard abscess of the intestines, upper emaciation, edema of the limbs, inability to raise the limbs, broken thigh, turbid fluid, inversion of Gi(氣) flow, sudden onset of fainting with cold extremities, diarrhea due to disorder of Gi(氣), and malaria.

U[尤在涇] also points out faults of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甲乙經]』 in the understanding of 『Naegyeong(內經)』.

Key Words : Ujaekyeong(尤在涇), Uihakdokseogi(醫學讀書記), Naegyeong(內經)

www.kci.go.kr

Ⅰ. 緖 論

『黃帝內經』이 저작된 이후에 많은 醫家들이 환자를 보며 혹은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醫學에 관한 많은 책을 남겼다. 後代 醫家들의 서적 가운데는 이론을 위주로 한 책도 있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총집결한 책도 있는데, 이들 서적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黃帝內經』을 이론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韓醫學 관련 서적을 저술함에 있어, 『黃帝內經』을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 경향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淸代 尤在涇에 의해 저술된 『醫學讀書記』도 이러한 경향성을 띄고 있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尤在涇은 淸代 江蘇 長州(지금의 江蘇省 吳縣)사람으로 이름은 尤怡이고 字는 在京 혹은 在涇이라 한다. 號는 拙吾며 태어난 해는 확실하지 않고 1749년에 사망했다.[1] 성장기는 가난했으나 명리를 좇지 않았고 詩文을 즐겨 番禺 方東華, 錢塘 沈方舟, 寧國 洪東岸등과 같은 사람들과 교우 하였다.[2] 醫學은 같은 고장 사람인 馬俶에게서 배웠고, 馬俶은 明代의 薛立齋와 蘇州의 沈郎仲에게서 배웠으며 沈郎仲의 스승은 名醫 李中梓이다.

尤在涇의 著作으로는 『傷寒貫珠集』8권, 『金匱翼』8권, 『續記』1권, 『醫學讀書記』3권, 『精香樓醫案』2권, 『金匱要略心典』3권 등이 있다. 특히『金匱要略心典』, 『傷寒貫珠集』등은 雜病과 傷寒에 관한 중요한 주석서로 지금도 많은 의학자들이 傷寒이나 金匱를 연구할 때 꼭 참고로 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醫學讀書記』는 尤在涇이 임상과 이론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짧은 문단으로 나누어 실어 놓았다. 그 내용으로는 醫學의 기초이론, 診斷, 辨證, 治法, 病證, 方藥, 鍼灸, 運氣, 의학서적에 관한 잘못된 점이나 선배의가의 기술한 바를 지적하는 등의 다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결국 尤在涇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듯 醫學전반에 관해서 尤在涇의 생각이 모아져 있는 중요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尤在涇의 의학사상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醫學讀書記』의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며, 이에 본인은 『醫學讀書記』中의 卷上의 原文을 해석하고 『內經』구절에 관한 여러 주석을 비교 검토하여 尤在涇의 의학사상을 이해하려 한다.

Ⅱ. 硏究方法

1. 飜譯에 사용된 원본은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출판된 『尤在涇醫學全書』에 수록된 『醫學讀書記·卷上』[3]이다. 原書에 있는 순서대로 모두 번역했으며 原書에는 簡字體가 사용되었으나 이 飜譯書에는 전부 繁體字로 고쳤다.

2. 『醫學讀書記』는 上中下 3권으로 되어있으며 이곳에는 卷上만을 연구하였다.

3. 新文豐出版公司 에서 출판된 『中國醫學源流論·校正醫學讀書記 合刊』을 校勘本으로 하여 校勘을 달았다.

4. 여러 주석서들의 내용과 비교 고찰하였고, 本書에 사용된 주요 주석서는 아래와 같다.

○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 馬蒔.『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 吳崑.『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 張志聰.『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 高士宗.『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 張介賓.『類經』. 서울. 一中社. 1992.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전화 : 033)730-0666. E-mail : bjkdcw@sangji.ac.kr

1) 李仙蘭.『金匱要略心典』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p.12.

2)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389.

3)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p.327-333.

www.kci.go.kr

Ⅲ. 本 論

[原文 1-1]

陽氣陰氣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4]. 蓋陽之精如日, 光明洞達, 故養神 ; 陽之柔如春景和暢, 故養筋. 日月之行, 不違其道 ; 樞機之運, 不離其位 ; 陽氣之動, 不失其所. 故曰 :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5]. 又曰 :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則折壽而不彰[6].

[注釋]

㉠ "欲"은 "當"의 뜻이다.

[解釋]

陽氣와 陰氣

『內經』에서 말하길, "陽氣는 精明하면 神을 기르고 부드러우면 筋을 기른다."고 하였다. 대개 陽의 精明함이 해와 같아 빛이 밝게 통하여 이르므로 神을 기른다. 陽의 부드러움은 봄의 빛이 화창한 것과 같으므로 筋을 기른다. 日月의 운행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樞機의 운행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陽氣의 움직임은 그 마땅한 바를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말하길, "(陽氣의 운행은) 마땅히 지도리의 운행하는 것과 같아야 하니, 만약 기거함이 놀란 듯하면 神氣가 이내 떠버리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陽氣는 하늘의 해와 같으니, 제자리를 잃게 되면 수명이 깎이고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였다.

[考察]

1)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 陽氣의 運養을 말한 것으로 王冰[7]·馬蒔[8]·吳崑[9]·張志聰[10]·高士宗[11]은 모두 陽氣가 안에서 精微롭게 변하면 神을 기르게 되고, 밖으로 부드러우면 筋을 기르게 되는데 동정이 마땅함을 잃게 되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張介賓[12]은 精의 의미를 精明으로 인식하여 神이 靈通變化하는 것이 바로 陽氣의 精明이라고 하였다. 尤在涇은 다른 주석가들보다 좀 더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즉, 陽氣의 精에 대해서는 張介賓과 같이 精明의 의미로 보았으니 陽의 精을 밝은 해에 비유하고 있다. 한편, 陽의 柔에 대해서는 봄의 빛이 和暢한 것으로 비유하였다. 아울러 陽氣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병증을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 : 寒邪가 침입할 때 기거함이 신중하지 못해서 陽氣가 밖을 지키지 못하므로 病이 됨을 말한 것이다. 王冰[13]·馬蒔[14]·吳崑[15]·張志聰[16]·高士宗[17]·張介賓[18]등의 注도 같으며

4)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28.

5)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24.

6)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23.

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8. "此又明陽氣之運養也. 然陽氣者, 內化精微, 養於神氣 ; 外爲柔軟, 以固於筋. 動靜失宜, 則生諸疾."

8)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2. "陽氣者, 內化精微, 養人之神, 外則柔和, 養人之筋."

9)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3. "此又明陽氣之運養也. 言陽氣者, 內化精微養於神氣, 外爲津液以柔於筋, 動靜失宜, 則生諸疾."

10)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22. "承上文而言陽氣者, 內養五臟之神, 出而榮養筋骨, 匪則通會於肌腠, 外衛於皮毛, 蓋有開有闔, 有出有入者也."

11)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8. "精, 精粹也. 柔, 柔和也. 上文煩勞精絶, 至目盲耳閉, 而神氣散亂, 故曰陽氣者, 精則養神, 所以申明上文, 陽氣不精而神無所養也. 上文大怒氣絶, 至血菀而傷筋, 故曰陽氣者, 柔則養筋, 所以申明上文, 陽氣不柔而筋無所養也."

12)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90. "此下言陽氣之運用, 若有不固, 則爲僂爲瘻, 爲畏爲驚, 爲癰爲瘡爲隔等證也. 神之靈通變化, 陽氣之精明也. 筋之運動便利, 陽氣之柔和也. 故精則養神, 柔則養筋, 陽氣去則神明亂, 筋骨廢, 爲病爲危, 如下文矣."

13)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6. "欲如運樞, 謂內動也. 起居如驚, 謂暴卒也. 言因天之寒, 當深居周密, 如樞紐之內動 ; 不當煩擾筋骨, 使陽氣發泄於皮膚, 而傷於寒毒也. 若起居暴卒, 馳騁荒佚, 則神氣浮越, 無所綏寧矣."

1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8. "是故因於冬之嚴寒者, 當深居周密, 凡有意欲, 心有所運而身不妄動, 如運樞以開闢其戶, 戶不太勞, 若起居卒暴, 有所驚駭, 則神氣浮露, 無復中存矣."

www.kci.go.kr

尤在涇 역시 앞의 주가들과 같다.

3)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則折壽而不彰 : 인체의 陽氣가 하늘의 해와 같아서 만약 그 운행이 정상을 잃으면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王冰[19]· 馬蒔[20]· 吳崑[21]· 張志聰[22]· 高士宗[23]· 張介賓[24] 모두 인체 陽氣의 중요성을 해에 비유해 설명했고 尤在涇도 같다.

[原文 1-2]

陽氣, 天氣也 ; 陰氣, 地氣也. 天氣不治, 則地氣上干矣. 故曰 :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25]. 雲霧出於地, 而雨露降於天. 地氣不治, 則天氣不化矣. 故曰 : 雲霧不精, 則上應白露不下[26]. 蓋天地陰陽, 本出一氣, 陽失則陰不能獨成, 陰失則陽不能獨化, 自然之道也. 人與天地參, 故肺氣象天, 病則多及二陰 ; 大小腸象地, 病則多及上竅. 仲景以大黃甘草湯, 治食已即吐. 丹溪用吐法, 治小便不通, 豈非有見於此歟?

[解釋]

陽氣는 天氣다. 陰氣는 地氣다. 天氣가 다스려지지 못하면 地氣가 天氣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內經』에서 말하길, "陽氣가 閉塞되면 地氣가 天氣의 밝음을 가린다."고 하였다. 구름과 안개는 땅에서 나오고 비와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地氣가 다스려지지 못하면 天氣가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內經』에서 말하길, "구름과 안개가 개지 못하면 즉 위에 응해서 하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개 天地의 陰陽은 본래 하나의 氣에서 나오는데 陽을 잃으면 陰이 능히 홀로 이루어질 수 없고 陰을 잃으면 陽이 홀로 능히 변화할 수 없음이 자연의 법도이다. 사람이 天地와 더불어 참여하여 三才가 된다. 그러므로 肺氣는 하늘을 본받게 되므로 病들면 대부분 前陰과 後陰의 二陰에 이른다. 大小腸은 땅을 본받게 되므로 病들면 대부분 위로 얼굴의 七竅에 이른다. 仲景이 大黃甘草湯으로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吐하는 증상을

15)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1. "運, 旋轉也; 樞, 天樞也. 是爲北極. 言陽氣衛外爲固, 欲如天運於上, 樞機無一息之停, 晝夜五十度運行於身, 如天之運樞則能衛外爲固, 若一息不運, 則機緘窮而衛氣索矣, 安望其通天而生也. 然養此陽氣, 正在起居之時, 若於此時不能淸淨, 煩擾如驚, 則神氣乃浮散而不固, 不固則失其衛外之用, 而有下文外感之患."

16)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8. "夫陽氣生於至陰, 由樞轉而外出風寒之邪, 皆始傷皮毛氣分, 是故因於寒, 而吾身之陽氣, 當如運樞以外應. 陽氣司表, 邪客在門, 故起居如驚, 而神氣乃浮出以應之. 神氣, 神臟之陽氣也."

17)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6. "若因於寒, 則欲如運樞. 運樞者, 寒邪猝至, 則起居如驚, 神氣乃外浮以應之也. 由是而知, 因於寒, 乃陽因而上也; 欲如運樞, 衛外者也."

18)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88. "此下言陽氣不固者, 四時之邪, 皆得以傷之也. 運樞, 如天樞之獨運於中也. 如驚, 謂擧動卒暴, 不愼重也. 凡因於寒者得冬之氣, 冬宜閉藏, 當使精神常運於中而身無妄動. 若起居不節, 則神氣外浮, 無復中存, 邪乃易入矣."

1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5. "此明前陽氣之用也. 諭人之有陽, 若天地有日, 天失其所則日不明, 人失其所則陽不固, 日不明則天境暝昧, 陽不固則人壽夭折."

2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8. "此言陽氣所以衛外, 而陽氣不固者, 則四時必傷於邪氣而爲病也. 夫所謂陽氣者, 衛氣也. 人有此陽氣, 猶天之有日也. 日得天之明而能久照, 陽氣必不失其所而能久壽, 若失其所而不能衛外, 必折夭而不彰. 失其所者, 衛氣衰弱而不能衛外也. 故天運當有此日以爲之光明, 人當有此陽氣以爲之衛外. 是故陽氣因而上行於皮膚分肉之間, 所以衛外者也. 惟陽氣不固, 故凡四時之邪氣, 皆從之而傷矣. 所謂不能因時之序者是也."

21)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1. "言人之有陽氣, 如天之有日. 日失其度, 則薄蝕而不彰明; 陽失其固, 則夭折而不壽考."

22)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8. "上節言順蒼天之氣, 以養吾身之陽, 此復言人之陽氣, 又當如天與日焉, 若失其所居之位, 所運之機, 則短折其壽而不能彰著矣. 夫天氣淸淨光明者也, 然明德惟藏而健運不息, 故天運當以日光明, 天之藏德不下, 故人之陽氣亦因而居上, 天之交通表彰於六合九州之外, 故人之陽氣所以衛外者也."

2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5. "人身陽氣, 如天如日, 蓋運行通體之陽氣, 若天旋轉; 經脈之陽氣, 若日也. 通體之氣, 經脈之氣, 各有其所, 若失其所, 則運行者不周於通體, 旋轉者不循於經脈, 故短折其壽, 而不彰着於人世矣."

24)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87. "此發明陽氣之本也. 日不明則天爲陽晦, 陽不固則人爲夭折, 皆陽氣之失所也."

25)『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8.

26)『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8.

www.kci.go.kr

치료했고 丹溪가 吐하는 법으로 小便이 통하지 않는 증상을 치료했으니 어찌 여기서 이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考察]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雲霧不精, 則上應白露不下. : 王冰[27]은 "陽氣者閉塞"을 風熱이 침습하여 九竅가 閉塞되는 것으로 보았고, "地氣者冒明"을 地氣인 雲霧에 의해 病이 들어 두 눈이 밝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雲霧不精"에 대해서는 陽이 盛하여 精微로운 氣로 化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니, 이것이 위로 應하여 白露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吳崑[28]은 九竅가 不通한 것을 陽氣閉塞으로 보았고, 五官이 失用한 것을 地氣冒明으로 보아 모두 邪氣가 空竅를 해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膻中의 氣를 雲霧로 보아 膻中의 氣가 不化하면 通調水道의 기능이 상실되어 膀胱으로 下輸하지 못하게 되어 降下의 令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尤在涇은 天氣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陽氣閉塞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肺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肺의 병변이 二陰으로 전해진다고 하였다. 尤在涇은 本證에 해당하는 증상을 小便不通으로 보았고, 小便不通에 吐法을 사용하는 丹溪의 치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한편, 地氣가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을 地氣冒明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大小腸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大小腸의 병변이 上竅로 전해진다고 하였다. 그는 本證에 해당하는 증상을 음식을 먹으면 바로 吐하는 것으로 보았고, 吐하는 증상에 張仲景이 大黃甘草湯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原文 2]

四氣

春氣, 少陽初升之氣, 陽方升而被抑, 生氣不達, 則臟㉮氣內敗, 猶木鬱則腐也. 故曰 : 逆春氣, 則少陽不生, 肝氣內變[29]. 夏爲盛長之氣, 心爲太陽之臟㉮. 夏氣不長, 則心氣不充, 不充則內空若洞也. 故曰 : 逆夏氣, 則太陽不長, 心氣內洞[30]. 秋氣應收而反泄, 秋真氣不斂, 燥反乘之, 則淸肅之化, 轉爲鬱燠㉠之化也. 故曰 : 逆秋氣, 則太陰不收, 肺氣焦滿[31]. 焦滿, 猶煩滿也. 冬氣應藏而不藏, 則少陰之經氣不歸, 而腎中之臟氣獨沈. 左氏所謂亂氣張脈, 外強中乾是也. 故曰 : 逆冬氣, 則少陰不藏, 腎氣獨沈[32].

[校勘]

㉮ 교감본에는 "藏"으로 되어있다.

[注釋]

㉠ 燠 : 燠은 暖의 뜻이다.

[解釋]

사계절의 氣

봄의 氣는 少陽으로 처음 위로 오르는 氣인데 陽이 바야흐로 위로 오르려는데 억압을 받으면 生氣가 (少陽이 주관하는 肝膽의 臟腑에)이르지 못해서 臟氣가 안에서 어그러져 오히려 木이 울체되어 썩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말하길 "봄의 氣에 거역하면 少陽의 氣가 生하지 않으므로 肝氣가 안에서 변하여 病이 된다."라고 하였다.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氣가 되고 心은 太陽의 臟腑가 되는데 여름에 陽氣가 자라지 못하면 氣가 충

2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 "陽謂天氣, 亦風熱也. 地氣謂濕, 亦雲霧也. 風熱之害人, 則九竅閉塞 ; 霧濕之爲病, 則掩翳精明. 取類者, 在天則日月不光, 在人則兩目藏曜也. 霧者雲之類, 露者雨之類. 夫陽盛則地不上應, 陰虛則天不下交, 故雲霧不化精微之氣, 上應於天而爲白露不下之咎矣."

28)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8. "陽氣閉塞, 山澤爲之不通. 地氣冒明, 七曜爲之蔽障. 以人論之, 九竅不通, 陽氣閉塞也; 五官失用, 地氣冒明也, 皆所以明邪害空竅之意. 雲霧精潔, 則白露降, 若早夜雲霧不靜潔, 則旦日白露不降. 人身膻中之氣猶雲霧也, 膻中氣化則通調水道下輸膀胱, 若膻中之氣不化, 則不能通調水道下輸膀胱, 而失降下之令, 猶之白露不降矣."

29)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9.

30)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9.

31)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9.

32)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9.

www.kci.go.kr

만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동굴과 같이 안이 비게 된다. 그러므로『內經』에서 말하길 “여름에 성장시키는 陽氣에 거역하면 太陽(여름을 대표하는 陽氣)이 성장할 수 없고 心의 氣가 안에서 비게 된다.”라고 하였다.

가을의 氣는 안으로 收斂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면 가을의 眞氣가 수렴되지 못하여 燥한 기운이 도리어 올라타게 되면 가을의 맑고 肅降시키는 기운이 바뀌어 鬱熱이 내부에서 熏蒸하게 된다. 그러므로『內經』에서 말하길 “가을에 收斂해야 하는 氣에 거역하면 太陰(가을을 대표하는 陰氣)이 수렴되지 못하여 肺氣의 鬱熱이 熏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득해진다.”고 하였다. 焦滿은 가슴이 달아오르며 그득한 것과 같다.

겨울의 氣는 깊이 감추어야 하는데 감추지 못하면 足少陰腎經의 經氣가 腎으로 돌아가지 못하므로 腎中의 藏氣가 홀로 가라앉게 된다. 좌씨가 소위 말한 “氣가 어지러워 張脈이 나타나는 것은 밖이 강하고 안이 건조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內經』에서 말하길 “겨울에 깊이 감추어 저장하는 氣에 거역하면 少陰이 감추어지지 못하여 腎氣가 홀로 가라앉는다.”라고 하였다.

[考察]

四時陰陽과 인체의 臟腑生理를 연결해서 四時에 순응하여 養生을 해야 病이 생기지 않고 四時 중 해당하는 계절의 기운에 역행하면 계절이 주관하는 臟腑에 病이 생김을 말한 것이다. 王冰[33]· 馬蒔[34]· 吳崑[35]· 張志聰[36]· 高士宗[37]· 張介賓[38] 등도 각 계절을 주관하는 기운에 순응해야 그 계절이 주관하는 臟腑가 病들지 않음을 말하고 尤在涇은 사계절의 太少陰陽에 대하여 원문 그대로 가을은 太陰, 겨울은 少陰으로 보았다.

[原文 3-1]

氣相得則和不相得則病[39]

主氣㉠應節候而分布, 歲以爲常者也 ; 客氣㉡隨司天

於病矣. 復有何氣以迎肺金, 欲收之氣, 而無痿瘧之病耶? 吾謂逆之則傷肺, 冬爲飧泄者, 何哉? 蓋不能盡養收之道, 以迎此秋氣, 則肺屬手太陰經者也. 太陰不能收, 而肺氣枯焦脹滿尙不能自免於病矣. 復有何氣以迎腎經欲藏之氣, 而無飧泄之病耶? 吾謂逆之則傷腎, 春爲痿厥者, 何哉? 蓋不能盡養藏之道, 以逆此冬氣, 則腎屬足少陰經者也. 少陰不能藏, 而腎氣已獨沈, 尙不能自免於病矣, 復有何氣以迎肝經欲生之氣, 而無痿厥之病耶?”

35)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9. “少陽不得升生之令, 則內鬱而變病. 太陽不得養長之令, 則心氣內虛, 而無火之症生矣. 太陰失其養收之令, 則肺氣不淸而病焦滿, 肺脹是也. 小飮失其養藏之令, 則腎氣獨沈, 令人膝胕重是也.”

36)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4. “此論陰陽之氣, 隨時出入, 逆則四時所主之臟, 自病於內也. 少陽主春生之氣, 春氣逆則少陽不生, 致肝氣鬱而內變矣. 太陽主夏長之氣, 太陽不長, 則心氣虛而內洞矣. 太陰主秋收之氣, 太陰不收, 則肺葉熱焦而脹滿矣. 少陰主冬藏之氣, 少陰不藏, 則腎氣虛而獨沈矣.”

37)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3. “少陽主春生之氣, 逆春氣, 則少陽不生, 肝木旺於春, 逆則肝氣內變. 太陽主夏長之氣, 逆夏氣, 則太陽不長, 心火旺於夏, 逆則心氣內洞. 太陰主秋收之氣, 逆秋氣, 則太陰不收, 肺金旺於秋, 逆則肺氣焦滿. 少陰主凍藏之氣, 逆冬氣, 則少陰不藏, 腎水旺於冬, 逆則腎氣獨沈.”

38)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11. “一歲之氣, 春夏爲陽, 秋冬爲陰; 春夏主生長, 秋冬主收藏. 春令屬木, 肝膽應之. 藏氣法時論曰: 肝主春, 足厥陰少陽主治. 故逆春氣, 則少陽之令不能生發, 肝氣被鬱, 內變爲病. 此不言膽而止言肝者, 以藏氣爲主也. 後放此. 夏令屬火, 心與小腸應之. 藏氣法時論曰: 心主夏, 手少陰太陽主治. 故逆夏氣, 則太陽之令不長, 而心虛內洞, 諸陽之病生矣. 秋令屬金, 肺與大腸應之. 藏氣法時論曰: 肺主秋, 手太陰陽明主治. 故逆秋氣, 則太陰之令不收, 而肺熱葉焦, 爲脹滿也. 冬令屬水, 腎與膀胱應之. 藏氣法時論曰: 腎主冬, 足少陰太陽主治. 故逆冬氣, 則少陰之令不藏, 而腎氣獨沈, 藏者藏於中, 沈者沈於下, 腎氣不蓄藏, 則注泄沆寒等病生矣.”

39)『黃帝內經素問·五運行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551.

33)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3. “生, 謂動出也. 陽氣不出, 內鬱於肝, 則肝氣混糅, 變而傷矣. 長, 謂外茂也. 洞, 謂中空也. 陽不外茂, 內薄於心, 奧熱內消, 故心中空也. 收, 謂收斂. 焦, 謂上焦也. 太陰行氣, 主化上焦, 故肺氣不收, 上焦滿也. 沈, 謂沈伏也. 少陰之氣, 內通於腎, 故少陰不伏, 腎氣獨沈.”

3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14-15. “吾謂逆之則傷肝, 夏爲寒變者, 何哉? 蓋不能盡養生之道, 以逆此春氣, 則少陽不生. 少陽者, 足少陽膽經也. 膽爲甲木, 肝爲乙木, 肝與膽爲表裏, 今少陽不生, 則肝氣內變, 其肝尙不能自免於病矣. 復有何氣以迎心經欲長之氣, 而無寒變之病耶? 吾謂逆之則傷心, 秋爲痎瘧者, 何哉? 蓋不能盡養長之道, 以逆此夏氣, 則太陽不長. 太陽者, 手太陽小腸經也. 小腸屬丙火, 心屬丁火, 心與小腸爲表裏, 今太陽不長, 則心氣內洞. 內洞者, 空而無氣也. 其心尙不能自免

www.kci.go.kr

而遞遷, 六期而復始者也. 而主客加臨㉢, 有相得, 不相得之異. 如子, 午年, 初之氣, 主厥陰風木, 客太陽寒水. 二之氣, 主少陰君火, 客厥陰風木 : 以水加木, 以木加火, 母來生子, 爲相得也 ; 三之氣, 主少陽相火, 客少陰君火 ; 四之氣, 主太陰濕土, 客太陰濕土 : 以火遇火, 以土遇土, 主客同氣, 爲相得也 ; 五之氣, 主陽明燥金, 客少陽相火 : 以火加金, 金畏火制, 爲不相得也 ; 六之氣, 主太陽寒水, 客陽明燥金 : 以金加水, 金能生水, 亦相得也.

[注釋]

㉠ 主氣 : 運氣學說用主氣以說明一年中六個階段(卽指初之氣, 二之氣, 三之氣, 四之氣, 五之氣, 終之氣) 的正常氣候. 運氣學說에서 1년을 6개로 나누어 매년 기후변화가 일정하게 변화함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용어.(木火土金水 순서로 진행된다)

㉡ 客氣 : 運氣學說用客氣以說明一年中六個階段(卽指司天, 在泉, 司天左間, 司天右間, 在泉左間, 在泉右間)的反常氣候. 運氣學說에서 매년 기후변화가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용어. 그 해의 地支에 따라 진행순서가 다르다.

㉢主客加臨 : 每年輪轉的客氣加於固定的主氣之上, 稱爲 "主客加臨", 又稱 "客主加臨". 어떤 한해의 기후변화가 대체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용어. 매년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主氣에 그 해의 地支에 따라 다른 客氣를 加하여 主氣, 客氣의 五行속성으로 계산한다.

[解釋]

氣가 相得하면 조화롭고 相得하지 못하면 病든다.

主氣는 절후에 따라 분포되어 있고 해마다 항상 같다. 客氣는 司天之氣에 따라 번갈아 옮겨져서 기한을 여섯 번 돌면 다시 시작된다. 主客加臨에는 서로 相得하고 不相得하는 다름이 있다. 예를 들어 子와 午의 해에는 初之氣가 主氣는 厥陰風木이고 客氣는 太陽寒水이다. 二之氣는 主氣가 少陰君火이고 客氣는 厥陰風木이다. 水로서 木에 가하고 木으로서 火에 가하니 어미가 와서 자식을 生하게 하니 相得이 된다. 三之氣는 主氣가 少陽相火이고 客氣가 少陰君火이고, 四之氣는 主氣가 太陰濕土이고 客氣도 太陰濕土이다. 火가 火를 만나고 土가 土를 만나니 主氣와 客氣가 서로 같은 氣가 되므로 相得이 된다. 五之氣의 主氣는 陽明燥金이고 客氣는 少陽相火로 火가 金에 가해지는데 金은 火의 억제를 두려워하므로 不相得이 된다. 六之氣의 主氣는 太陽寒水이고 客氣는 陽明燥金이니 金이 水에 더해져서 金이 능히 水를 生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역시 相得이 된다.

[原文 3-2]

相得則和, 不相得則病矣. 其有相得而亦病者, 如水臨金, 金臨土, 土臨火之屬, 以子臨母, 以下臨上, 所謂不當位也, 故亦病也. 然須合歲運強弱而論之. 如甲子年, 歲土太過, 三之氣爲少陰君火, 以火加土, 則土益旺而無制, 是雖相得而不相和也. 庚子年, 歲金太過, 五之氣少陽相火, 以火加金, 金有制而反和, 是雖不相得, 而不爲病也.

[解釋]

相得이 되면 조화롭고 不相得하면 病이 든다. 그러나 相得이면서도 病이 되는 것이 있으니, 예를 들어 水가 金에 臨하거나(客氣가 太陽寒水이고 主氣가 陽明燥金)金이 土에 臨하거나 土가 火에 臨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자식의 기운이 어미의 기운에 臨하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臨하는 것이니 이른바 不當位이다. 그러므로 역시 病이 든다. 그러나 마땅히 그 歲運의 강약을 참고해서 相得을 논해야 한다. 예를 들어 甲子년에 歲運은 土가 太過한데 三之氣는 少陰君火다. 火가 土에 加해지면 土가 더욱 왕성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비록 相得이긴 하나 서로 조화롭지는 않다. 庚子년의 歲運은 金이 太過한데 五之氣가 少陽相火이다. 火가 金에 더해지면 金이 제약을 받게 되어 오히려 조화로움이 있으니 이것이 비록 相得하지 못하나 病이 되지 않는 것이다.

[原文 3-3]

又如水臨金, 火臨木之屬, 設遇金, 木不及之運, 則金得水而清, 木得火而明, 雖不當位, 亦不病也. 水㉮臨土, 木臨火之屬, 設遇木㉯, 火太過之運, 則土得火而

www.kci.go.kr

堅, 火得木而燔, 雖當位, 亦病也. 更有進者, 太過之土, 木不能制者, 金反得而泄之 ; 不及之木, 水不能滋者, 火反得而養之 ; 此天地生成之妙也. 欲明運氣之理者, 其可以淺求之耶 ?

[校勘]

㉮ 水 : 火의 오자. 뒤에 '土得火而堅'에 의거 고쳐야 한다.

㉯ 木 : 土의 오자. 뒤에 '土得火而堅'에 의하면 土가 運이다.

[解釋]

또한 예를 들어 水가 金에 臨하거나 火가 木에 臨하는 것과 같은 경우, 가령 金과 木이 부족한 運을 만나면, 金이 水를 얻어 청정해지고 木이 火를 얻어 밝아지니, 비록 不當位이지만 역시 病이 들지는 않는다. 火가 土에 臨하고 木이 火에 臨한 것과 같은 경우, 가령 木과 火의 太過한 運을 만난다면 土가 火를 얻어서 견고해지고 火가 木을 얻어서 불사르게 되니 비록 當位이지만 病이 된다. 다시 논의를 진전시켜 보면 運이 太過한 土여서 氣인 木이 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金이 도리어 (자식인 金이 위에 臨하므로) 土를 泄할 수 있으며 運이 不及한 木인데 氣인 水가 능히 자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火가 도리어 (자식인 火가 氣가 되어 위에 臨하므로) 木을 기를 수 있으니, 이는 天地가 생성되는 오묘한 이치이다. 運氣의 이치에 밝고자 하는 자는 어찌 그 이치를 쉽게 구할 수 있겠는가!

[原文 4-1]

天符㉠歲會

應天爲天符, 承歲爲歲直㉡, 三合爲治㉢[40]. 天, 謂司天 ; 歲, 謂歲支 ; 曰應, 曰承, 謂歲運也. 司天行天之氣, 歲支行地之氣, 歲運行氣交之化, 三者其氣不必皆同, 而亦有時而同者. 如戊寅, 戊申歲, 戊爲火運, 寅, 申又爲相火, 是以歲運而同司天之氣, 謂之天符. 符者, 同也, 同於天也. 如甲辰, 甲戌歲, 甲爲土運, 辰, 戌又爲土, 是以歲運而同歲支之氣, 謂之歲直. 直者, 值也, 值其歲也. 又曰歲會, 會者, 合也, 合於歲也.

[注釋]

㉠ 天符 : 中運氣之與司天之氣相符合, 稱爲天符. (中運과 司天之氣의 五行이 같은 해)

㉡ 歲直 : 指中運之氣與歲之本氣 (指地支的五行屬性) 相同, 又稱 "世會".(中運과 地支의 五行이 같은 해)

㉢ 三合爲治 : 指卽爲天符, 又爲歲會的年分, 又稱 "太乙天符".(天符이면서 歲會인 해)

[解釋]

天符와 歲會

大運이 司天之氣와 같은 五行속성이면 天符가 되고 大運이 그해의 歲支와 같은 五行속성이면 歲直이 되며, 大運과 司天之氣와 그해의 歲支가 모두 같으면 세 기운이 합하여 다스린다. 天은 司天之氣를 이른다. 歲는 歲支를 이른다. 應이라고 하고 承이라고 한 것은 그해의 大運과 應하고 承한다는 것이다. 司天은 하늘의 氣가 운행하는 것이고 歲支는 땅의 氣가 운행하는 것이고 歲運은 氣交의 변화가 운행하는 것이다. 司天과 歲支와 歲運의 氣가 반드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나 또한 같은 때가 있다. 예를 들어 戊寅년과 戊申년에 戊는 火運이고 寅과 申은 또한 少陽相火니 이는 歲運이 司天之氣와 같은 것으로 天符라 이른다. 符는 같다는 것이니 司天之氣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辰년과 甲戌년에서 甲은 土運이고 辰과 戌은 土이니 이는 歲運이 歲支의 氣와 같으니 歲直이라 이른다. 直은 만난다는 것이니 五行屬性이 같은 歲支를 만난다는 것이다. 歲直은 또한 말하길 歲會라고도 하는데 會는 부합한다는 것이니 歲支의 五行屬性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原文 4-2]

若己丑, 己未歲, 歲運之土, 旣同天氣, 又同歲支, 謂之太乙天符, 卽經所謂三氣并合爲治也. 夫氣同者, 其化同 ; 其氣異者, 其化異. 化同則有相助爲虐之害, 化異則有互相克賊之憂. 然以不及之運, 而得司天歲支

40)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533.

www.kci.go.kr

之助, 則不及之氣轉爲平氣, 而氣反治 ; 若歲運太過, 其氣已盛, 而復得司天, 歲支之合, 三氣并治, 其亢而害物, 有不可言喩者矣. 故曰 : 中執法㉠者, 其病速而危 ; 中行令㉡者, 其病徐而持 ; 中貴人㉢者, 其病暴而死[41].

[注釋]

㉠ 執法 : 天符를 말한다.

㉡ 行令 : 歲會를 말한다.

㉢ 貴人 : 太乙天符를 말한다.

[解釋]

己丑년과 己未년과 같은 경우 歲運이 土로써 司天之氣와 같고 또한 歲支와도 같으니 이것을 太乙天符라 이르니 내경에서 이른바 세기가 모두 합하여지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무릇 氣가 같은 것은 同化이고 氣가 다른 것은 異化이니 同化는 서로 조장하여 해치는 경우가 있고, 異化는 서로 克하여 해치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불급한 運은 司天之氣와 歲支之氣의 도움을 얻으면 불급한 氣가 바뀌어 平氣가 되니 氣가 오히려 다스려진다. 만약 歲運이 태과해서 그 氣가 이미 성한데 다시 司天之氣와 歲支之氣의 合을 얻어 三氣가 함께 다스리면 항성되서 해가 됨이 말로 다 비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말하길 "邪氣가 天符의 해에 적중되면 病이 빠르고 위급하며 邪氣가 歲會의 해에 적중되면 病이 완만하게 유지되고 邪氣가 太乙天符인 해에 적중되면 病이 격렬하고 죽게 된다."고 하였다.

[原文 5-1]

六元正紀㉠

『素問·六元正紀大論』分列六十年運氣, 病治之紀, 統論六㉡氣司天在泉之政, 可謂詳且盡矣. 然而驗之於事, 合之於時, 往往不能相符. 且也一年之間, 九州之內, 有東南旱乾而西北淫雨者, 有西北焦槁而東南大水者, 則九州分野, 上應九宮, 爲地氣之不齊也. 且有宋元豐四年, 歲在辛酉, 涸流之紀㉢, 而河決大水, 則氣化勝復之異, 胡源所謂歲水不及, 侮而乘之者土也.

[注釋]

㉠ 紀 : 原本作 "氣", 据目錄改.

㉡ 六 : 原本作 "元", 與文意不符, 疑爲形近之誤, 徑改.

㉢ 涸流之紀 : 水運不及之年.

[解釋]

六元正紀大論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60년의 運氣를 나누어 열거해서 病을 치료하는 벼리로 삼아 六氣, 司天, 在天의 法道를 나누어 論하였으니 상세하고 또한 그 내용을 다 들어냈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일에서 그것을 증험하고 때에 合해 보면 간혹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일년 사이에 九州의 안에 東南方은 가뭄으로 땅이 마르고 西北方은 장마가 드는 것이 있고, 西北方은 타서 마르고 東南方은 홍수가 나는 것이 있으니, 九州로 나누어진 영역이 위로 九宮에 응해서 地氣가 조화롭지 못한 것이다. 또한 宋나라 元豐 4년은 해가 辛酉년으로 水運이 부족한 해인데도 黃河의 둑이 무너질 정도로 큰 홍수가 있었으니 바로 氣化勝復의 괴이함이니 胡源이 말한바 "水가 불급한 해인데도 水氣가 土를 업신여기고 올라탄다."라는 것이다.

[原文 5-2]

土不務德, 故以濕勝, 寒時則有泉涌河衍涸流生魚, 其變爲驟注, 爲霖潰, 名爲少羽㉠, 而實與太宮㉡之歲同者是也. 是故五運六氣之理, 不可不知也, 亦不易知也. 而況古今度數之有差等, 天人感召之有休咎㉢. 執而泥之, 刻舟而求劍者也 ; 廢而棄之, 亡筌㉣而求者也. 非沈潛之士, 而具圓機之智者, 烏足以語此 !

[注釋]

㉠ 少羽 : 水不及.

㉡ 太宮 : 土太過.

㉢ 休咎 : 吉凶.

㉣ 筌 : 捕魚用的竹器.

41) 『黃帝內經素問·六微旨大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578.

www.kci.go.kr

[解釋]

土가 德에 힘쓰지 않으면 濕이 勝한다. 날이 찬데 샘이 솟고 강이 흘러 넘쳐 水가 不及한 때인데도 물고기가 생겨, 그 변화가 빠르게 물이 고이고 장마에 둑이 터질 정도이니, 이름하여 小羽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土가 太過한 太宮의 해와 같은 것이 이 경우이다. 이런 까닭으로 五運六氣의 이치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쉽게 알 수도 없는 것이다. 하물며 古今의 度數에 차이가 있고, 天人이 感召함에 吉凶이 있는데 융통성 없이 잡고 집착한다면 물에 떨어진 칼을 찾기 위해 배에 칼이 떨어진 위치를 새겨놓고 칼을 찾는 것이고, 五運六氣의 이치를 폐기하고 버리는 것은 통발을 없앤 채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침잠하여 五運六氣의 이치를 연구하는 선비로 圓機의 지혜로움을 구비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이치(雲氣)를 말할 수 있겠는가!

[原文 6-1]

『靈』『素』不同

六節藏象論云：心爲陽中之太陽，肺爲陽中之太陰，腎爲陰中之少陰，肝爲陽中之少陽.[42] **而『靈樞·九針十二原』云：陽中之少陰肺也，陽中之太陽心也，陰中之少陽肝也，陰中之太陰腎也.**[43] **按『素』以肝爲陽者，言其時；『靈』以肝爲陰者，言其臟也.『素』以肺爲太陰，腎爲少陰者，擧其經之名；『靈』以肺爲少陰，腎爲太陰者，以肺爲陰臟而居陽位，腎위陰臟而居陰位也. 二經之不同如此.**

[解釋]

『靈樞』와 『素問』이 같지 않다.

『素問·六節臟象論』에 이르길, "心은 陽中의 太陽이 되고 肺는 陽中의 太陰이 되고 腎은 陰中의 少陰이 되고 肝은 陽中의 少陽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靈樞·九鍼十二原』에 이르길, "陽中의 少陰이 肺고 陽中의 太陽이 心이고 陰中의 少陽이 肝이고, 陰中의 太陰이 腎이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素問』에서 肝을 陽이라고 한 것은 그 時令을 말한 것이고, 『靈樞』에서 肝을 陰이라고 한 것은 그 臟腑를 말한 것이다. 『素問』에서 肺를 太陰이라고 하고 腎이 少陰이 라고 한 것은 그 經絡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고 『靈樞』에서 肺를 少陰이라고 하고 腎을 太陰이라고 한 것은 肺는 陰藏이면서 陽의 위치에 居하고 腎은 陰藏으로 陰의 위치에 居하기 때문이다. 『素問』과 『靈樞』의 같지 않음이 이와 같다.

[考察]

이 구절은 尤在涇이 선대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만 했을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王冰[44]은 계절 十二經脈과 하루를 4시기로 나누어 陰陽배속을 이해하였으나 肺와 肝은 十二經脈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心과 腎은 계절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馬蒔[45]는 肝은 시절을 이용해 설명하고, 肺와 腎은 十二經脈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心은 설명을 생략했다. 吳崑[46]은 心과 腎은 王冰의 주를 따르고 肝은 馬蒔의 주를 따른다. 張志聰[47]은 위치와 十二經脈,

42) 『黃帝內經素問 · 六節藏象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p.112-113.

43) 『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p.9-10.

4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67-68. "心主於夏, 氣合太陽, 以太陽居夏火之中, 故曰陽中之太陽, 通於夏氣也.……肺藏爲太陰之氣, 主王於秋, 晝日爲陽氣所行, 位非陰處, 以太陰居於陽分, 故曰陽中之太陰, 通於秋氣也.……腦者髓之海, 腎主骨髓, 發者腦之所養, 故華在發充在骨也. 以盛陰居冬陰之分, 故曰陰中之少陰, 通於冬氣也.……以少陽居於陽位, 而王於春, 故曰陽中之少陽,通於春氣也."

4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88. "心肺居於膈上, 皆屬陽, 而心則爲陽中之陽, 當爲陽中之太陽也……腎肝居於膈下, 皆屬陰而腎爲陰中之陰, 當爲陰中之少陰也. 蓋肺爲手太陰, 故卽以太陰名之, 而腎爲足少陰, 故卽以少陰名之耳.……東方爲陽生之始, 而肝則爲五臟之長, 故肝屬陽中之少陽也."

46)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50. "心旺於夏, 氣合太陽, 以太陽居夏火之中, 故曰陽中之太陽, 通於夏氣也……肺居陽部而旺於秋, 故爲陽中之太陰, 通於秋氣……腎屬水而旺於冬, 又居陰分, 故爲陰中之少陰, 通於冬氣……酸者木之味, 蒼者木之色, 木旺於春, 位列於東, 又主發生, 故爲陽中之少陽, 通於春氣."

47)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97-98. "在體爲脈, 故其充在血脈. 其類火, 而位居尊高, 故爲陽中之太陽,……臟眞居高而屬陰, 故爲陽中之太陰,……腎爲陰臟, 而有<坎>中之陽, 故爲陰中之少陰,……木旺

www.kci.go.kr

계절에 따른 구분을 했다. 高士宗[48]은 肝은 陰中之少陰으로 원문의 내용을 고치고 太陽·少陰·太陰·少陽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張介賓[49]은 肺는 陽中之少陰, 腎은 陰中之太陰으로 인식하면서, 『素問·刺禁論』의 心과 肺를 부모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여 肺가 太陰이 되고, 腎이 少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太陽, 少陰, 太陰, 少陽과 관련된 논쟁을 『周易』에서 제시한 四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五藏의 위치적인 면으로 陰陽의 대강을 삼고, 五藏의 五行 속성을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즉, 횡격막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心과 肺는 陽이 되고, 횡격막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肝과 腎은 陰이 된다. 陽에 해당되는 心과 肺를 다시 五行 속성으로 구분하면 心은 陽中의 陽이 되어 太陽이 되고, 肺는 陽中의 陰이 되어 少陰이 된다. 陰에 해당되는 肝과 腎을 다시 五行 속성으로 구분하면 腎은 陰中의 陰이 되므로 太陰이 되고, 肝은 陰中의 陽이 되므로 少陽이 된다.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靈樞·九鍼十二原』의 배속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50].

[原文 6-2]

經脈十二, 絡脈十五, 凡二十七氣. 以上下所出爲井, 所溜爲滎, 所注爲腧, 所過爲原㉠, 所行爲經, 所入爲合[51]**. 故本輸篇云：膀胱出於至陰, 爲井 ; 溜於通谷, 爲滎 ; 注於束骨, 爲腧 ; 過於京骨, 爲原 ; 行於昆侖, 爲經, 入於委中, 爲合. 膽出於竅陰, 爲井 ; 溜於俠溪, 爲滎 ; 注於臨泣, 爲腧 ; 過於丘墟, 爲原 ; 行於陽輔, 爲經 ; 入於陽之陵泉, 爲合. 胃出於厲兌, 爲井 ; 溜於內庭, 爲滎 ; 注於陷谷, 爲腧 ; 過於衝陽, 爲原 ; 行於解溪, 爲經.入於下陵爲合.**[52]

[注釋]

㉠『靈樞·九鍼十二原』에는 "所過爲原"이 없다.

[解釋]

經脈十二와 絡脈十五, 합하여 이십칠 氣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솟아 나온 곳이 井이 되고, 세차게 흐르는 곳은 滎이 되고, 모였다 흐르는 곳은 腧가 되고, 지나치는 곳은 原이 되고, 순행하는 곳은 經이 되고, 들어가는 곳은 合이 된다. 그러므로 『靈樞·本輸』에 이르길 "膀胱은 至陰에서 나오니 (至陰이) 井이 되고 通谷으로 세차게 흐르니 (通谷이) 滎이 되고 束骨에 흘러가니 (束骨이) 腧가 되고 京骨을 지나니 (京骨이) 原이 되고 崑崙을 순행하니 (崑崙이) 經이 되고 委中에 들어가니 (委中이) 合이 된다. 膽은 竅陰에서 나오니 (竅陰이) 井이 되고 俠谿로 세차게 흐르니 (俠谿가) 滎이 되고 臨泣에 흘러가니 (臨泣이) 腧가 되고 丘墟를 지나니 (丘墟가) 原이 되고 陽輔를 순행하니 (陽輔가) 經이 되고 陽陵泉에 들어가니 (陽陵泉이) 合이 된다. 胃는 厲兌에서 나오니 (厲兌가) 井이 되고 內庭으로 세차게 흐르니 (內庭이) 滎이 되고 陷谷에 흘러가니 (陷谷이) 腧가 되고 衝陽을 지나니 (衝陽이) 原이 되고 解谿를 순행하니 (解谿가) 經이 되고 하릉에 들어가니 (하릉이) 合이 된다."고 하였다.

[原文 6-3]

而『根結篇』云：足太陽根起於至陰, 溜於京骨, 注於昆侖, 入於天柱, 飛揚. 足少陽根起於竅陰, 溜於丘墟, 注於陽輔, 入於天容. 足陽明根起於厲兌, 溜於衝陽, 注於下陵, 入於人迎, 豊隆.[53] **是以井, 滎, 腧, 原, 經,**

於春, 陽氣始生, 故爲陽中之少陽."

48)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p.73-74. "心屬夏火, 故爲陽中之太陽.…… 肺屬秋金, 故爲陽中之太陰.…… 腎屬冬水, 故爲陰中之少陰.…… 肝屬春木, 故爲陰中之少陽."

49)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3. "愚按:『新校正』言全元起本及『甲乙經』『太素』, 俱以肺作陽中之少陰, 腎作陰中之太陰. 盖謂肺在十二經雖屬太陰, 然陰在陽中, 當爲少陰也; 腎在十二經雖屬少陰, 然陰在陰中, 當爲太陰也. 此說雖亦理也, 然考之刺禁論云: 肓肓之上, 中有父母. 乃指心火肺金爲父母也. 父曰太陽, 母曰太陰 自無不可; 腎雖屬水而陽生於子, 卽曰少陰, 於義亦當. 此當仍以本經爲正."

50) 方正均.『黃帝內經』의 心의 槪念과 藏象에 대한 硏究.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p.12-14.

51)『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7.

52)『黃帝內經靈樞·本輸』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p.16-18.

53)『黃帝內經靈樞·根結』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54.

www.kci.go.kr

合之處, 即一經所言, 而亦有不同如此.

[解釋]

그러나 『靈樞·根結篇』에 이르길 "足太陽의 뿌리는 至陰에서 일어나 京骨에 머물고 崑崙을 흘러서 天柱, 飛揚에 들어간다. 足少陽의 뿌리는 竅陰에서 일어나 丘墟에 머물고 陽輔를 흘러서 天容에 들어간다. 足陽明의 뿌리는 厲兌에서 일어나 衝陽에 머물고 下陵을 흘러서 人迎, 豊隆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井, 滎, 腧, 原, 經, 合의 위치이니 즉 하나의 經典에서 말한 바가 이와 같이 같지 않음이 있다.

[原文 7-1]

『素問』傳寫之誤

蒼天之氣, 淸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故聖人傳精神, 服天氣而通神明.[54] **按 "傳", 當作 "專", 言精神專一, 則淸淨弗擾, 猶蒼天之氣也. 老子所謂專氣致柔 ; 太史公所謂精神專一, 動合無形, 贍足萬物 ; 班氏所謂專精神以輔天年者是也. 若作 "傳", 與義難通. 王注精神可傳, 惟聖人得道者乃能爾. 予未知精神如何則傳也.**

[解釋]

『素問』傳寫의 잘못

『內經』에서 말하길 "맑은 하늘의 기운이 청정하면 뜻이 다스려지니, (그 氣에) 순응하면 陽氣가 고밀해져서 비록 賊邪가 있어도 능히 해칠 수 없다. 그러므로 聖人은 정신을 오로지 하고 天氣를 따르니 神明이 通하게 된다."라고 했다. 생각건대 "傳"은 마땅히 "專"으로 되어야 하니 정신이 專一하면 맑고 깨끗해서 어지러워지지 않아서 마치 蒼天의 氣와 같게 된다. 老子의 이른바 "氣를 專一하게 하여 부드러움에 이른다."와 太史公이 이른바, "정신을 專一하게 하면 움직임이 형체가 없음에 합해서 만물을 족히 굽어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班氏의 이른바 "정신을 專一하게 하여 천수를 보존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만약 "傳"이라하면 뜻이 통하기 어렵다. 王冰은 "精神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聖人으로 道를 터득한 자라야 능할 수 있다."고 注를 달았는데, 나는 정신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모르겠다.

[考察]

故聖人傳精神 : 王冰[55]은 傳을 전한다의 의미로 해석했으니, 精神을 傳할 수 있는 것은 聖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馬蒔[56]는 四時의 氣를 따라 一身의 精氣를 運行하는 것으로 보았다. 吳崑[57]은 傳을 受로 해석했고, 精神을 陰陽五行의 精粹한 氣로 보았다. 즉, 吳崑은 陰陽五行의 精粹한 氣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張志聰[58]은 四時의 精神을 傳하고 運行하는 것으로 보았다. 張介賓[59]은 受로 해석했다. 尤在涇은 다른 주석가들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여 專一하다는 의미로 보았으니, 精神을 專

54)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p.22-23.

5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5. "春爲蒼天發生之主也. 陽氣者, 天氣也. 陰陽應象大論曰: 淸陽爲天, 則其義也, 本天全神全之, 理全則形亦全矣, 因天四時之氣序, 故賊邪之氣, 弗能害也. 夫精神可傳, 惟聖人得道者乃能爾, 久服天眞之氣, 則妙用自通於神明也."

5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8. "蓋蒼天之氣, 至淸淨者也, 吾能法天地之淸淨, 則志意自治, 陽氣自固, 當是之時,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所以弗能害耳. 惟聖人知之, 隨四時以運此身之精氣, 服蒼天之陽氣以通天氣之神明, 彼常人則失之, 所以內閉九竅, 外壅肌肉, 而衛氣已散解, 此之謂自傷, 陽氣之所以創也."

57)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0. "蒼天, 蒼蒼然之天. 淸淨, 謂上下天光, 無疾風驟雨之意. 人之生氣通天, 故志意亦治. 治, 謂靜爽也. 人能順之, 勿令暴喜暴怒, 如蒼天之淸淨, 則胸次悠然, 陽氣因之而固矣. 雖有賊邪, 弗能害也, 卽有賊風虛邪, 不能傷夫陽氣堅固之膚也. 傳, 受也. 精神, 二五之粹也. 服, 佩服也. 天氣, 四時之氣也. 通, 達也. 神明, 靈而昭昭者也. 傳靜神, 得天也; 服天氣, 體天也; 通神明 則與天爲一矣. 聖人之生氣通天如此."

58)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8. "生氣通乎天, 是以蒼天之氣淸淨, 則人之志意亦治. 人能順此淸淨之氣, 而吾身之陽氣外固, 雖有賊邪, 勿能爲害, 此因四時之序而能調養者也. 故聖人傳運其精神, 餐服蒼天之淸氣, 以通吾之神明."

59)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87. "按: 上文云生之本本於陰陽, 而自此以下凡專言陽氣者七何也? 蓋生氣通天, 以陽爲本, 陽氣旣固, 陰必從之, 故聖人諄諄於此, 其示人之深意可知矣. 陽氣固者, 其天全也, 天全則神全, 雖有賊風邪氣, 不能犯之, 蓋在乎因時之序, 如四氣調神之謂是也. 傳, 受也. 服, 佩也. 惟聖人者能得天之精神, 服天之元氣, 所以與天爲一 而神明可與天通矣."

www.kci.go.kr

一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原文 7-2]

因於寒, 因於暑二節, 丹溪重定章句, 爲是. 脈乍疏乍數者死, 謂氣亂而失常也. 又少陽脈至, 乍數, 乍疏, 乍短, 乍長. 夫少陽氣即未齊, 其脈大小不同已耳! 何至失其常度耳? 按扁鵲陰陽法云: 少陽之至, 乍小, 乍大, 乍長, 乍短. 夫豈好異而云然哉!

[解釋]

'因於寒, 因於暑'의 두 구절은 丹溪가 거듭 바로 잡은 장구가 옳다. 脈이 갑자기 성글었다가 갑자기 빠른 자는 죽는데 氣가 어지러워 정상을 잃은 것이다. 또한 少陽脈이 이르는 것이 갑자기 빠르다 갑자기 성글고 갑자기 짧다가 갑자기 길어지는 것은 少陽의 氣가 아직 가지런하지 않아 그 脈의 大小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정상의 정도를 잃게 되는가? 생각건대 扁鵲陰陽法에 이르길, "少陽이 이르는 것은 갑자기 작고 갑자기 크며 갑자기 길고 갑자기 짧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괴이함을 좋아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考察]

因於寒, 因於暑二節, 丹溪重定章句, 爲是 :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온 "因於寒,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 因於暑, 汗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에 대해 朱丹溪는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의 12글자를 衍文이라 해서 빼고, 因於寒 뒤에는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8글자를 이어 붙여야 한다고 한 것을 말한다. 滑壽·吳崑·張琦 등도 朱丹溪의 주장과 동일한데 暑邪와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증상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는 "汗出而散"을 發汗法의 치료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체의 정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暑熱의 침습을 받는 경우 高熱이 나고, 아울러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汗出而散"이 發汗法의 치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기가 暑邪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邪氣가 풀려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60].

60) 신용섭, 이용범. 暑證의 고열 증상 및 發汗解表法의 적용에 관한 고찰-『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寒'조문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170. pp.184-185.

[原文 7-3]

春脈太過, 則令人善忘, 忽忽眩冒而巔疾[61]. 王氏謂"忘"當作"怒", 是. 解脈令人腰痛, 痛而引肩, 目眴眴然, 時遺溲[62]. 又云: 解脈令人腰痛如引帶, 常㉠如折腰狀, 善怒[63]. 詳本篇備擧諸經腰痛, 乃獨遺帶脈, 而重出解脈. 按帶脈起於少腹之側, 季脅之下, 環身一周, 如束帶然. 則此所謂腰痛如引帶, 常如折腰狀者, 自是帶脈爲病. 云解脈者, 傳寫之誤也.

[注釋]

㉠ 常 : 原本作"當", 此据下文改.

[解釋]

『內經』에서 말하길 "봄의 脈이 크게 지나치면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잘 내게 하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癲疾이 된다."고 했다. 王冰이 말하길, "忘은 마땅히 怒로 써야 한다."고 했는데 옳다. 『內經』에서 말하길 "解脈이 사람으로 하여금 腰痛이 생기게 하는데 통증은 어깨를 당기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때론 소변을 지린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길 "足太陽膀胱經의 別行脈인 解脈이 사람으로 하여금 腰痛이 허리를 당기는듯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고 화를 잘 내게 한다."고 했다. 상세하게 본편을 다른 모든 經典의 腰痛을 근거로 비교하면 本篇에서만 유독 帶脈이 빠져있고 解脈은 두 번 거듭 나왔다. 생각건대 帶脈은 아랫배의 옆에서 시작 되서 갈비뼈 밑으로 내려가 몸을 도는데 띠로 묶는 것과 같다. 즉 여기서 이른바 腰痛이 허리를 당기는 듯하고 형상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한 것은 帶脈이 病이 된 것이니, 解脈이라고 한 것은 傳寫의 잘못이다.

61) 『黃帝內經素問·玉機眞藏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97.

62) 『黃帝內經素問·刺腰痛』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367.

63) 『黃帝內經素問·刺腰痛』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368.

www.kci.go.kr

[考察]

1) 春脈太過, 則令人善忘, 忽忽眩冒而巔疾 : 忘을 王冰[64]은 怒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尤在涇은 王冰의 해석이 옳다고 했다. 吳崑[65]·張介賓[66]도 怒로 해석하고, 張志聰[67]과 高士宗[68]은 忘의 뜻으로 해석했다.

2) 解脈 : 王冰[69]·馬蒔[70]·吳崑[71]·張志聰[72]·高士宗[73]·張介賓[74]등이 모두 足太陽膀胱經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尤在涇은 帶脈이라고 보고 있으니, 제반 증상과 연계해 볼 때 타당한 견해로 사료된다.

[原文 7-4]

血溫身熱者死.[75] 按 : "溫" 當作 "溢" . 夫血寒則凝而不流, 熱則沸而不寧, 溫則血之常也. 身雖熱, 何遽至死, 惟血旣流溢, 復見身熱, 則陽過亢而陰受逼, 有不盡不已之勢, 故死. 今人失血之後, 轉增身熱, 咳嗽者, 往往致死, 槪可見矣.

[解釋]

『內經』에서 말하길, "(腎脈이 搏動하면서 沈하면 腸澼證을 일으켜 下血하되) 血이 따뜻하고 몸에 熱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溫"은 마땅히 "溢"로 해야 한다. 무릇 血이 차면 응체되어 흐르지 않고, 血이 뜨거우면 들끓어 편안하지 않으니, 따뜻해야 血이 정상이다. 몸에 비록 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대번에 죽음에 이르겠는가? 오직 血이 이미 흘러넘쳤는데 다시 몸에 熱이 보이면 陽이 지나치게 항성하여 陰이 핍박을 받아 病勢가 다하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음이 있게 되므로 죽는다. 지금 사람이 失血한 後에 몸에 熱이 오르며 咳嗽하는 사람은 이따금 죽음에 이름을 대체로 볼 수 있다.

[考察]

血溫身熱者死 : 王冰[76]은 血溫身熱하게 되면 陰氣가 喪敗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였으니, 血溫을 血熱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후 馬蒔[77]·吳崑[78]·張志聰[79]·高士宗[80]·張介賓[81] 등이 모두 王冰의 주장을

6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18. "忽忽, 不爽也. 眩, 謂目眩, 視如轉也. 冒, 謂冒悶也. 胠, 脅也. 忘, 當作怒."

65)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92. "肝志怒, 故太過則令人善怒."

66)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131. "忘, 當作怒. 本神篇曰: 肝氣虛則恐, 實則怒. 氣交變大論曰: 歲木太過, 甚則忽忽善怒, 眩冒巔疾, 皆同此義."

67)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77. "夫五臟之脈, 行氣於其所生, 受氣於所生之母, 肝行氣於心, 受氣於腎, 春脈太過, 則氣並於上, 經曰: 氣並於上, 亂而喜忘. 氣上盛而與督脈會於巔, 故眩冒而巔疾也."

68)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33. "肝脈太過, 則令人善忘."

6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29. "解脈, 散行脈也, 言不合而別行也. 此足太陽之經, 起於目內眥, 上額交巔上, 循肩膊俠脊抵腰中, 入循膂絡腎屬膀胱, 下入膕中. 故病斯候也. 又其支別者, 從髆內別下貫胛, 循髀外後廉而下合於膕中. 兩脈如繩之解股, 故名解脈也."

7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69. "解脈者, 膀胱經之脈也. 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眥, 上額交巔上, 循肩膊, 俠脊抵腰中, 入循膂絡腎屬膀胱, 下入膕中, 又其支別者, 從膊內別下貫胛, 循髀外後廉, 而下合於膕中兩脈, 如繩之解散, 故名解脈. 解者, 散行意也, 言不合而別行也. 故解脈令人腰痛, 痛必引肩, 目眩眩然不明, 時遺溲, 皆膀胱之證候也."

71)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80. "解脈, 足太陽支別之脈也, 其脈循肩膊內, 從膊內左右別, 故痛而引肩; 又起於目內眥, 故目眩眩然而不靜; 又屬於膀胱, 故令遺溲也."

72)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61. "解脈者, 散行橫解之絡脈也. 蓋經脈爲裏, 浮而橫者爲絡, 絡脈橫散於皮膚之間, 故名曰解脈, 諸絡脈者, 在皮之部, 皮主太陽之氣分, 故痛引肩目, 時遺溲, 而宜取太陽之郄也."

7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276. "解脈, 周身橫紋之脈散於皮膚間太陽之所主也. 解脈令人腰痛, 不能從腰而散於上, 故痛引肩; 不能從肩而散於頭, 故目眩眩然; 膀胱水府之氣不出於皮毛, 故時遺溲."

74)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761. "解脈, 足太陽經之散行脈也. 其脈循肩髆, 故痛而引肩. 其起在目內眥, 故目眩眩然. 其屬膀胱, 故令遺溲."

75) 『黃帝內經素問·大奇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417.

7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66. "血溫身熱, 是陰氣喪敗, 故死."

7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10. "其血若溫, 其身若熱, 是水不能勝火也, 故曰死."

78)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208. "血溫身熱, 必陰氣喪敗, 故死."

79)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417. "夫陰陽相和則生, 偏害則死. 三陽爲陽, 三陰爲陰. 氣

www.kci.go.kr

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張志聰은 三陽의 熱이 陰血을 압박하여 血이 熱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血溫의 상태가 된다고 하여 血溫에 이르게 되는 病機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高士宗은 "血溫於內, 身熱於外"라고 하여 血溫을 內熱로, 身熱을 外熱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비해 尤在涇은 血溫을 "血溢"로 인식하면서 熱로 인해 血이 沸騰하여 흘러넘쳐 出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熱로 인해 血이 흘러넘쳐 出血이 있은 후에 身熱의 증상이 다시 나타면 陽이 지나치게 항성하고 陰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주석가와 尤在涇의 주장이 熱의 증상으로 본 것은 같으나, 尤在涇은 특히 血溫을 內熱로 인해 나타나는 出血의 증상이 나타나는 血溢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인다.

[原文 7-5]

立而暑解, 治其骸關[82)]㉠. "暑解"當是"骨解", 言骨散墮如解也. "骨"與"暑"相似, 傳寫之誤也. 診法常以平旦, 陰氣未動, 陽氣未散, 飮食未進, 經脈未盛, 絡脈調勻, 氣血未亂, 故乃可診有過之脈[83)]. 按營衛生會篇云：平旦陰盡, 而陽受氣矣[84)]. 夫陰方盡, 何云未動？ 陽氣方受, 何云未散？ 疑是"陽氣未動, 陰氣未散". "動"謂盛之著, "散"謂衰之極也.

[注釋]

㉠ 骸關 : 骸, 脛骨, 骸關之膝骨之分解處.

[解釋]

『內經』에서 말하길 "서 있을 때 관절이 熱이나면 骸關(足少陽經의 陽關穴)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暑解"는 마땅히 "骨解"가 옳으니, 뼈가 흩어져 무너지는 것이 풀어지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骨"과 "暑"는 서로 글자가 비슷하니 傳寫의 잘못이다. 『內經』에서 말하길 "診脈하는 法은 항상 해 뜰 무렵에 陰氣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陽氣가 아직 흩어지지 않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 經脈이 아직 성하지 않으며 絡脈이 두루 균형을 이루어 氣血이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라야 비로써 허물이 있는 脈을 診脈할 수 있다."고 했다. 생각건대 『靈樞·營衛生會篇』에서 "해 뜰 무렵에 陰氣가 다하고 陽分이 氣를 받는다."고 했다. 무릇 陰이 바야흐로 다했는데 어떻게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른 것인가? 陽氣가 바야흐로 받았는데 어찌 "아직 흩어지지 않는다."고 이른 것인가? 아마도 "陽氣未動, 陰氣未散"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動"은 盛함이 드러나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散"은 衰함이 極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考察]

立而暑解, 治其骸關 : 王冰[85)]은 暑解에 대해서 膝痛이 있는데 서있을 경우 膝骨이 풀리면서 안에서 熱이 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膝蓋骨이 풀리는 증상과 發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후 吳崑[86)]· 張志聰[87)]· 高士宗[88)] 등은 骨을 膝蓋骨 부위로 인식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 부위를 지적하지 않는 등 부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骨이 풀리는 증상과 發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王冰의 주장과 비슷하다. 즉,

---

爲陽, 血爲陰. 三陽之熱薄於陰血, 血受熱傷, 故血溫也. 身熱者, 三陽盛而三陰之氣絶也."

80)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21. "血溫於內, 身熱於外, 火炎血竭, 故死."

81)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169. "若其血溫身熱者, 邪火有餘, 眞陰喪敗也, 故當死."

82) 『黃帝內經素問·骨空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477.

83) 『黃帝內經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61.

84) 『黃帝內經靈樞·營衛生會』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96.

8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22. "暑, 熱也. 若膝痛, 立而膝骨解中熱者, 治其骸關. 骸關, 謂膝解也."

86)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244. "暑解, 熱畜骨解也."

87)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497. "暑, 熱也. 膝解爲骸關, 立而骨解中熱者, 取骸關以治之, 卽膝解處也."

88)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88. "暑, 熱也. 解, 膝骨縫也. 立而暑解, 立則骨縫如暑熱也. 骸關, 卽膝解也."

www.kci.go.kr

吳崑의 경우 熱이 축적되어 뼈가 풀리는 것으로 보았고, 張志聰의 경우 뼈가 풀리면서 안에서 熱이 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高士宗의 경우 解를 膝蓋의 骨縫으로 인식하여 骨縫에 熱이 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이상의 주석가들의 주장과 달리 熱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骨解"로만 인식하고 있다.

[原文 8-1]

『甲乙』之誤

『素問』曰：陰氣盛於上則下虛, 下虛則腹脹滿. 又曰：陽氣盛於上, 則下氣重上, 而邪氣逆, 逆則陽氣亂, 陽氣亂則不知人.[89] **此二段乃岐伯分答黃帝問厥, 或令人腹滿, 或令人昏不知人二語之辭. 所謂陰氣者, 下氣也. 下氣而盛於上, 則下反無氣矣；無氣則不化, 故腹脹滿也.**

[解釋]

『甲乙經』의 잘못

『素問』에 말하길, "陰氣가 위에서 성하면 아래가 허하고 아래가 허하면 배가 脹滿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길, "陽氣가 위에서 성하면 아래의 氣가 거듭 올라가 邪氣가 上逆하고 上逆하면 陽氣가 어지러워진다. 陽氣가 어지러워지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두 문단은 岐伯이 黃帝가 질문한 "厥證에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腹滿의 증상이 있게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昏絶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말에 대해 구분하여 대답한 것이다. 이른바 陰氣는 아래의 氣다. 아래의 氣가 위에서 성하면 아래는 반대로 氣가 없게 되고, 氣가 없으면 소화하지 못하므로 배가 脹滿하게 된다.

[原文 8-2]

所謂下氣者, 即陰氣也. 陽氣上盛, 則陰氣上奔, 陰從陽之義也. 邪氣亦即陰氣, 以其失正而上奔, 即爲邪氣. 邪氣既逆, 陽氣乃亂. 氣治則明, 亂則昏, 故不知人也.『甲乙經』削"陽氣盛於上"五字, 而增"腹滿"二字于"下虛則腹脹滿"之下, "則下氣重上"之上. 林氏云：當從『甲乙』, 謂未有陰氣盛於上, 而又陽氣盛於上者. 二公並未體認分答語辭, 故其言如此, 殆所謂習而弗察者耶！

[解釋]

이른바 아래 氣라는 것은 즉 陰氣다. 陽氣가 위에서 성하면 陰氣는 위로 달려가니 陰이 陽을 따른다는 뜻이다. 邪氣는 또한 바로 陰氣인데 그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위로 달려가므로 邪氣가 되는 것이다. 邪氣가 이미 逆하면 陽氣가 이내 어지러워진다. 氣가 다스려지면 정신이 밝고 어지러워지면 정신이 어두우니, 그러므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甲乙經』에서 "陽氣盛於上"의 다섯 글자를 삭제하고 "腹滿"의 두 글자를 덧붙여 "下虛則腹脹滿"의 아래 "則下氣重上"의 위에 넣었다. 林億이 이르길 "마땅히『甲乙經』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陰氣가 위에서 盛한데, 또 陽氣가 위에서 盛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皇甫謐과 林億 두 사람은 모두 (이 문장이) 대답을 나누어서 한 말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이른바 "익히기는 하되 살피지 못한 자"이다.

[考察]

陰氣盛於上則下虛, 下虛則腹脹滿. 陽氣盛於上, 則下氣重上, 而邪氣逆, 逆則陽氣亂, 陽氣亂則不知人 : 馬蒔[90]는 陰氣를 足少陰으로 보아 足少陰의 氣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여 下氣가 위로 올라가 다투게 되면 下虛하게 되므로 腹中에 脹滿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陽氣에 대

89)『黃帝內經素問·厥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394.

9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94. "陰氣者, 據上文觀之, 則是足少陰也. 足少陰奪於所用, 醉以入房, 下氣上爭, 而行之於上則下虛, 故氣在腹而不在足, 所以腹中脹滿也. 陽氣者, 由上文觀之, 則是足陽明也. 足陽明酒氣盛於上, 足少陰腎氣又上, 彼邪氣從之而上, 則邪氣與陽氣爲逆, 逆則陽氣亂, 陽氣亂則昏暈而不知人也."

www.kci.go.kr

해서는 足陽明의 氣로 인식하였는데, 술을 마셔 足陽明의 氣가 上部에서 盛한 상태에서 足少陰의 氣가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邪氣도 같이 따라 올라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張介賓[91]은 陰氣가 上部에서 盛하고 아래에서 지켜지지 못하면 陰이 下部에서 虛해져, 결과적으로 脾腎의 氣가 不化하여 腹部에 脹滿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陽氣가 上部에서 盛하게 되면 下氣도 함께 위로 行하여 어지럽게 되므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張志聰[92]은 陰氣가 上部에서 盛하면 中焦의 陽氣가 날로 손상을 입게 되고 下焦의 陽氣가 虛해지므로 脹滿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下氣에 대해서는 下焦의 元陽으로 인식하여 陽氣가 上部에서 盛하면 下氣도 上逆하게 되어 陽氣가 上部에서 어지럽게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高士宗[93]은 脹滿의 증상에 대해 陽氣가 下部에서 虛하여 생기는 寒厥證으로 보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熱厥證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甲乙經』과 『新校正』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高士宗의 경우 厥證 가운데 寒厥證과 熱厥證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尤在涇의 견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른 醫家들도 명확하게 寒厥과 熱厥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病機의 설명을 살펴보건대 유사하게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脹滿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尤在涇은 下部에 氣가 없어 氣化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脾腎의 氣가 不化한 것이라고 하였고, 張志聰은 中焦와 下焦의 陽氣가 虛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니, 尤在涇의 주장에 비해 자세하고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原文 8-3]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 其軟而散者, 當消環自己.[94] 按 "搏堅而長" 者, 太過之脈. 心象火, 而脈縈舌 ; 心火有餘, 故病舌卷不能言也. "軟而散" 者, 不足之脈. 心者生之本, 神之處 ; 心不足則精神爲消, 如卑慄㉠遺亡恐懼之類是也. "環自己" 者, 言經氣以次相傳, 如環一周, 復至其本位, 而氣自復, 病自已也.『診要經終論』云 : 刺中心者, 環死.[95] 義與此同. "環自己" 者, 經盡氣復則生 ; "環死" 者, 經盡氣絶則死也.『甲乙經』"環" 作 "渴", 非.

[注釋]

㉠ 卑慄 : 病名, 其病心血不足, 胸中痺塞, 不能飮食, 如痴如醉, 心中常有所歉, 愛居暗室, 或倚門後, 見人卽驚避無地.

[解釋]

『內經』에서는 "心脈이 박동 치면서 堅하며 길면 마땅히 病은 혀가 말리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脈이 부드러우면서 흩어지는 것은 마땅히 邪氣가 사그라 들면서 스스로 낫는 것이다."고 했다. 생각하건대 "搏堅而長"은 太過한 脈이다. 心은 火를 형상하고 脈은 혀에 얽혀 있으므로 心火가 有餘하면 病은 혀가 말리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軟而散"은 부족의 脈이다. 心은 생명의 근본이고 神이 머무는 곳이므로 心이 부족하면 정신이 소진되어 卑慄의 증상과

91)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483. "陰氣盛於上, 則不守於下, 故下虛. 陰虛於下, 則脾腎之氣不化, 故腹爲脹滿. 重 ,幷也. 邪氣, 氣失常也. 陽氣盛於上, 則下氣幷而上行, 幷則逆, 逆則亂, 陽氣亂則神明失守, 故暴不知人也."

92)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95. "陰氣盛於上, 謂中焦之陽氣日損, 陰氣獨盛於上也. 陰盛於上, 則下焦之陽氣亦虛, 陽虛於下, 是以腹脹滿也. 下氣謂下焦之元陽. 邪氣, 腎臟水寒之邪也. 陽氣盛於上, 謂陰氣虛而陽氣獨勝也. 陽盛於上則下氣重上, 下氣上乘則寒邪隨之而上逆, 逆則陽氣亂於上, 而卒不知人."

9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p.302-303. "陰寒之氣盛於上, 則上下皆陰, 而陽氣虛於下, 下虛則腹脹滿, 以明腹滿而爲寒厥之意. 陽熱之氣盛於上, 則下氣重上, 而邪氣逆, 逆則陽氣亂, 亂則心神不宁, 故暴不知人. 或至半日, 遠至一日乃知也, 以明暴不知人而爲熱厥之意. 此一節, 論厥証之寒熱陰陽, 陽虛則爲寒厥, 陰虛則爲熱厥也."

94)『黃帝內經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70.

95)『黃帝內經素問·診要經終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158.

www.kci.go.kr

같이 되니, 잘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등의 증상이 바로 이것이다. “環自己”라는 것은 經氣가 순서대로 서로 전해지는 것이 고리와 같아 1주하고 다시 그 근본자리에 이르게 되어 氣가 저절로 회복되어 病이 스스로 낫게 되는 것이다. 『素問·診要經終論』에 이르길 “心에 침이 적중되면 1일만에 죽는다.”고 했으니 뜻이 이와 같다. “環自己”라는 것은 經을 다 돌아 氣가 회복되면 生한다는 것이고, “環死”는 經을 다 돈 뒤 氣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甲乙經』에 “環”字를 “渴”字로 썼는데 틀리다.

[考察]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 其軟而散者, 當消環自己 : 尤在涇은 搏堅而長을 太過한 脈으로 軟而散을 부족한 脈으로 해석했다. 張志聰[96]은 尤在涇과 같은 해석을 했고, 吳崑[97]은 搏堅而長을 肝邪가 심한 것으로 軟而散은 心脈이 조화로운 것으로 해석했는데 張介賓[98]도 吳崑과 같이 搏堅而長을 肝邪가 盛한 것으로 해석했다. 馬蒔[99]는 搏堅而長을 心經의 邪氣가 盛한 것으로 軟而散은 강한 脈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해석했고, 高士宗[100]은 搏堅而長을 心氣가 邪氣를 받아 옹체된 것으로, 軟而散은 不及한 것으로 해석했다. 王冰[101]은 搏堅而長을 氣虛가 極에 이른 脈을, 軟而散은 氣가 實하고 血이 虛한 脈으로 해석했다.

이상의 주석가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心脈이 “搏堅而長”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心火(邪氣)가 有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軟而散”한 脈에 대해서는 馬蒔·吳崑은 心脈이 조화로운 것으로 해석하여 病的인 상태에서 정상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高士宗과 尤在涇은 不足한 脈으로 보았는데, 證狀과 연계해 볼 때 邪氣가 有餘한 것과 비교하여 不足하다는 것이지 正氣가 不足한 病理的인 脈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刺中心者, 環死 : 環은 氣가 一周하는 것을 말하니, 잘못하여 心이 針에 적중되면 氣가 一周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다. 王冰[102]· 馬蒔[103]· 吳崑[104]· 張志聰[105]· 高士宗[106]도 損傷시키지 말아야 하는 心을 損傷시키면 죽게 된다고 했다.

[原文 8-4]

推而外之, 內而不外, 有心腹積也 ;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有熱也 ; 下而不上, 頭項痛也 ; 按之至骨, 脈氣少者, 腰脊痛而身有痺也.[107] 『甲乙經』“上而不

96)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52. “此言按其脈而知臟腑虛實之病. 搏堅而長者, 搏擊應手有力而長, 此爲太過之脈. 心火太過, 故當病舌卷, 心主言, 故不能言也. 其軟而散者, 此爲不足之脈.”

97)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79. “心脈搏堅而長, 肝邪於心也. 舌爲心之苗, 肝主筋, 故舌卷. 舌爲發聲之機, 卷則不能言矣. 軟而散, 心脈和也. 病當消去, 期經行一環而自已.”

98)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158. “搏, 謂弦强搏擊於手也. 心脈搏堅而長者, 肝邪乘心, 藏氣虧甚而失和平之氣也. 手少陰脈從心系上挾咽, 故令舌卷不能言.”

9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26. “此以下六節, 正以答知病所在四句之問. 而此一節言心脈有剛柔而病亦以異也. 心脈搏擊於手而且堅且長, 乃心經邪盛, 當令人舌卷短而不能言也. 蓋手少陰之脈, 從心系上俠咽喉, 故病如是耳. 其脈若軟而散, 則剛脈漸柔, 當完一周日之時而病自已也.”

100)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15. “搏堅, 邪正相持之脈也; 長, 脈體有餘也; 軟散, 脈體不及也. 心脈搏堅而長, 則心氣受邪而壅滯, 故當病舌卷不能言; 其軟而散者, 此爲不及之脈, 心液內虛, 故當消渴. 心藏神, 神機環轉, 消渴自愈, 故環自已.”

10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03. “搏, 謂搏擊於手也, 諸脈搏堅而長者, 皆爲勞心而臟脈氣虛極也. 心手少陰脈, 從心系上俠咽喉, 故令舌卷短而不能言. 諸脈軟散, 皆爲氣實血虛也. 消謂消散, 環謂環周, 言其經氣如環之周, 當其火王自消散也.”

10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94. “中心環死者, 氣行如環之一周則死, 謂周十二辰也.”

10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16. “五臟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凡刺胸腹者, 必當避之. 苟不避之, 則中心者環死. 蓋心爲君主之官, 故其死最速, 當周環一日之時而死也.”

104)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72. “心爲天君, 不可傷損, 刺者誤中其心, 則經氣環身一周而人死矣. 凡人一日一夜, 營衛之氣五十度周於身, 以百刻計之, 約二刻而經氣循環一周也.”

105)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40. “環者, 一周時也, 蓋日爲陽, 心爲陽中之太陽, 一晝一夜, 日環轉一周, 故至周轉而氣終也.”

106)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06. “若逆之使入, 中傷心氣者, 周時環轉而死. 蓋陽中之太陽, 心也, 如天之日, 一日一周, 今不能周, 故環死.”

www.kci.go.kr

下”作 “下而不上”, “下而不上”作“上而不下”, 非. 蓋“上而不下”者, 上盛而下虛, 下虛則下無氣, 故腰足冷 ; “下而不上”者, 有降而無升, 不升則上不榮, 故頭項痛也.

[解釋]

『內經』에서 말하길 “(손가락으로 눌렀다)위로 올릴 때 안에서 느껴지나 손가락을 올렸을 때는 느껴지지 않으면 心腹에 積이 있는 것이다. 손가락을 밀면서 누를 때 위쪽에서는 느껴지나 깊이 누르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몸에 熱이 있는 것이다. (눌렀다 위로 뗄 때)아래에서는 느껴지나 위에서는 느껴지지 않으면 頭項痛이 있다. 뼈에 이를 정도로 깊이 눌러서 脈이 약하면 腰脊痛이 있으며 痺證이 있다.”고 했다.『甲乙經』에 “上而不下”를 “下而不上”으로 “下而不上”을 “上而不下”로 썼는데 틀리다. 대개 “上而不下”는 上部가 성하고 아래가 허한데 아래가 허하면 아래에 氣가 없는 것이므로 허리와 다리가 차다. “下而不上”은 내려가는 것은 있는데 올라가는 것이 없는 것이다. 오르지 않으면 上部가 영화롭지 못하므로 머리와 목덜미가 아프다.

[原文 8-5]

經文前二段是有餘之病, 故受病處脈自著 ; 後二段是不足之病, 故當病之處脈反衰. 按之至骨而脈氣少, 爲腰脊痛而身有痺者, 亦不足之診也. 經文虛實互擧, 深切診要, 自當從古.

[解釋]

『內經』을 인용한 문단의 앞의 두 문단은 有餘한 病이고 그런 까닭에 病을 받은 곳의 脈이 스스로 두드러지고 뒤의 두 문단은 부족의 病인 까닭에 病이 처한 脈이 반대로 衰한다. 눌러서 뼈에 이르러 脈氣가 적으면 허리와 등뼈에 통증이 되며 몸에 痺證이 있는 것은 역시 부족의 증상이다.『內經』에서 虛實을 번갈아 가면서 거론한 것으로 심도 있고 절실한 診斷의 요체니, 마땅히 옛 법을 따라야 한다.

Ⅳ. 考 察

尤在涇의 『醫學讀書記·卷上』에는 27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내용은 運氣, 養生, 疾病에 관한 증상과 진단 혹은 치료에 관한 견해, 傳寫의 잘못된 것, 선대의가의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運氣에 대해 尤在涇은 주요한 개념을 짚어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기본을 알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는 主氣, 客氣, 客主加臨, 天符, 歲會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했다.

養生의 중요한 점으로 天氣와 地氣의 조화를 강조했다. 하늘과 땅의 변화에 따라 그 사이에 다양한 기후변화가 나타나는데 만약 天氣와 地氣의 변화가 생기면 정상적이지 못한 기후변화가 생긴다. 사람 몸에서도 肺氣의 변화가 小便不通하는 증상을 생기게 하고 이를 치료할 때 吐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大小腸의 병변이 上部로 영향을 주는 것 등을 들어서 설명했다. 또한 사계절이 주관하는 기운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온 聖人傳精神, 服天氣而通神明에서 傳의 의미를 專一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다른 주가들과 다른 해석을 했다.『素問·大奇論』의 血溫身熱者死에서 尤在涇은 血溫을 血溢로 인식하면서 熱로 인해 血이 흘러넘쳐 出血이 있은 후에 身熱의 증상이 다시 나타면 陽이 지나치게 항성하고 陰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주석가와 尤在涇의 주장이 熱의 증상으로 본 것은 같으나, 尤在涇은 특히 血溫을 內熱로 인해 나타나는 出血의 증상이 나타나는 血溢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인다.

『素問·厥論』에 나오는 陰氣盛於上則下虛, 下虛則腹脹滿에 대해 高士宗을 제외한 의가들은 熱厥과 寒厥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尤在涇과 高士宗만이 구분을 했고, 脹滿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尤在涇은 下部에 氣가 없어 氣化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脾腎의 氣가 不

107)『黃帝內經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p.179-180.

www.kci.go.kr

化한 것이라고 하였고, 張志聰은 中焦와 下焦의 陽氣가 虛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니, 尤在涇의 주장에 비해 자세하고도 명확하다.

『素問·脈要精微論』의 心脈이 搏堅而長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心火(邪氣)가 有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軟而散한 脈에 대해서는 馬蒔, 吳崑은 心脈이 조화로운 것으로 해석하여 病的인 상태에서 정상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高士宗과 尤在涇은 不足한 脈으로 보았는데, 邪氣가 有餘한 것과 비교하여 不足하다는 것이지 正氣가 不足한 病理的인 脈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尤在涇의 『醫學讀書記·卷上』에 관한 학술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養生방면에서는 사람이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몸에 陽氣가 잘 보존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四時에 잘 적응해서 몸에 陽氣가 잘 쌓이게 해야지 만약 불필요하게 陽氣를 소모시키면 그로인해 주어진 命을 다할 수 없음을 말했다.

2. 經典의 내용 중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문맥상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靈樞』와 『素問』의 경우 『素問·六節臟象論』과 『靈樞·九鍼十二原』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또한 『靈樞·本輸篇』의 내용과 『靈樞·根結篇』의 내용 중 井, 滎, 腧, 原, 經, 合의 穴이 서로 같지 않음을 지적했다.

3. 『素問』의 傳寫의 잘못을 지적했다.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온 "聖人傳精神"에서 傳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素問·玉機眞藏論』에 나온 "令人善忘"에서 忘이 怒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素問·大奇論』의 "血溫身熱者死"에서 溫이 溢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素問·骨空論』의 내용 중 暑解가 骨解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醫學讀書記·卷上』에 나타난 尤在涇의 사상의 중심은 『內經』이다. 모든 근거를 『內經』을 통해서 제시했고, 뿌리를 『內經』에 두고 사람과 자연, 질병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參考文獻

<논문>

1. 李仙蘭. 『金匱要略心典』에 대한 硏究.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p.12.
2. 신용섭, 이용범. 暑證의 고열 증상 및 發汗解表法의 적용에 관한 고찰-『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寒'조문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170. pp.184-185.
3. 方正均. 『黃帝內經』의 心의 개념과 장상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p.12-14.

<단행본>

1.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8, 9, 10, 11, 13, 50, 72, 79, 92, 180, 208, 244.
2.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3, 15, 16, 18, 106, 115, 133, 276, 321, 388. pp.73-74, 302-303.
3. 전용민 편저. 再編附翼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원문화사. 2005. p.7, 18, 19, 23, 24, 28, 54, 158, 161, 170, 196, 197, 367, 368, 394, 417, 477, 533, 551, 578. pp.9-10, 16-18, 22-23, 112-113, 179-180.
4.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14, 18, 22, 140, 152, 177, 361, 395, 417, 497. pp.97-98.
5.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389. pp.327-333.
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8, 22, 88, 116, 126, 269, 294,

www.kci.go.kr

310. pp.14-15.
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 13, 15, 16, 18, 94, 103, 118, 229, 266, 322. pp.67-68.
8.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11, 33, 131, 158, 169, 387, 388, 390, 483, 761.

www.kci.go.kr

www.kci.go.kr